

여성발명활동에 국·공·민·기업·지·연 노력 기울여

- '여성발명지원종합대책' 수립 및 '여성기업우수상품·발명품 박람회' 개최 -

특

허청은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능력신장과 남녀평등사 회 실현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여성을 지재권 창출과 활용의 축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여성발명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금번 지원 종합대책은 그 동안 특허청의 여성발명에 대한 지원이 소규모 단편적 일회성 행사비용지원 등에 그 쳤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의 지재권 창출과 활용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기반(Infra)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 될 예정이며 여성부, 중기청 등 여성정책 추진 정부부처의 각종 여성지원 사업 등과 적극 연계되어 전개될 계 획이다.
- 이를 위해 장단기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금년 3월 특허사업화 지원시 여성우대 지원 근거를 『특허사업화협의회 운영 요령』에 반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5월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여성 경제인협회가 주관하 는『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를 개최 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 등 여성발 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Infra)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 우선 지난 1월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으로 여성발명진흥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여성발명교실운영 등 약 20여개 과제가 도출 되었으며, 이중 『2001년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2001. 5. 3~5, COEX 본관 1층 태평양관)』 개최, 전국 순회 여성발명교실 운영,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등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예정 이다.
- 또한 여성의 지재권창출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여성 발명인력 양성사업과 여성발명 지원기 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국내 산·학·연 여성연구인력과 특허사무소 등 지재권분야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 설하고 여성 지재권인력을 채용하는 벤처기업에 임금 보조가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하여 추진 되며, 중·고· 대학교의 여학생을 위한 지재권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발명 여학생이 대학 특례입학시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 그리고 여성부 등 정부부처와 특허청, 한국여성발명협회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여성발명지원이 정부 전체의 여성정책 및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여성발명가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특허사업화 지원사업』등 특허청 주관 각종 지원사업에 여성발명 우대조치를 시행토록 관련 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이러한 각종 자금을 지원 받은 여성발명 기업인 을 여성전용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시켜 여성 발명가의 기업활동을 촉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여성발명협회의 회원확충 등 여성발명협회의 자생력 제고와 국제 여성발명박람회 개최, 국제 여성발명 가 협회 설립 추진 등 여성 발명활동의 국제화도 추진되며,
- 이러한 다양한 여성발명촉진 지원노력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경우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과 발명활동이 활발 해져 한국의 여성기업인의 비중과 국가경제에의 기여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의 여성발명 지원 종합대책>

■ 여성발명 진흥사업 지원수요 발굴 및 지원실시



-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 여성발명진흥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대상과제 발굴(2001. 1. 11~17)
- 여성발명품전시회,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개최/월간 발명여성 창간/여성발명품 유통관매전시장 운영 등
- 수요조사결과에 바탕 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실시
- 2001년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 개최(2001. 5. 3~5, COEX 본관 1층 태평양관, 한국여성발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공동주관)
- 전국 순회 여성발명교실 운영(2001년 연중,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

■ 여성의 지재권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여성발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 지원
- 한국 여성발명협회 주관 여성발명교실, 모자발명교실 등 운영
- 여성발명가 등 지재권분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국제특허연수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
- 학생발명지원사업 중 여학생 지원 확대
- 여성발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체제 구축
- 우리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 여성발명진흥 담당인력 배치
- 여성부-특허청-한국여성발명협회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청내 각종 포상, 위원회 구성 등에 여성발명가 지원 확대

■ 여성발명가의 기업활동 촉진

-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 등에 여성발명 우대조치 시행
- 특허사업화자금 지원시 여성발명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 사업화 협의회 운용요령 개정(2001. 3월)
- 해외출원비용 등 각종 보조금 지원시 여성발명가 신청 발명에 대하여 가점 부여 등 우대 추진: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 개정(2001년상반기)
- 타부처의 각종 여성 지원사업에 여성발명가를 우대토록 반영
- 특허사업화 자금 등 우리청 자금을 지원 받은 여성발명가 기업인의 『여성전용창업보육센터』우선 입주 및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박람회』 참가 지원
- 여성 지재권담당인력을 채용하는 벤처기업 등에 임금보조 추진 (여성부와 협의 필요, 재원 : 여성발전기금)

■ 여성발명협회의 자립기반구축 및 국제화 추진

- 여성발명협회의 자립기반 구축
- 우리청, 여성부, 발명진흥회, 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에 여성발명 관련 코너 신설 및 상호 네트워크 연결
- 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 구축 지원, 공보 CD-ROM 공급, 여성출원시 출원정보제공을 통한 회원 확보 지원 등
- 여성발명가의 활발한 국제활동 추진
- APEC 여성자문기구 핵심사업 등과 관련하여 여성발명가 국제모임 결성 추진
- 국제 여성발명가 협회 설립, 국제여성발명박람회 개최 등 추진



특허청 특허전산시스템 본격 수출시대 개막

- 특허·상표의 출원·등록부터 검색까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기술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수출된다. 3. 9(금)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한·브라질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임내규(林來圭)특허청장과 그라-X(Gra a ranha)브라질 특허청장은 우리기술의 대 브라질 이전에 합의하였다.
- 이번에 수출되는 기술은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지난 99년 1월부터 운영해 온 특허넷(KIPONET) 시스템으로, 특허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로 특허 출원할 수 있고, 특허청 입장에서는 수동업무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 특허관련 전산화사업은 최근 지적재산권의 가치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 출원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양국 특허청간 양해각서 형식으로 체결된 특허넷의 브라질 수출은 그 동안 임청장이 추진해 온 지적재산 세일즈 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과 전자정부의 실현이라는 우리정부의 정책이 대외적인 성과로 나타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 또한, 기술이전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적극적인 기술마케팅을 통해 향후, 지적재산 국제기구의 주요 정보화 사업에 우리 기술진의 참여와 표준 채택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 특허청 관계자는, 금번의 성과를 토대로 중남미, 유라시아등 개도국 특허청에 기술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우리기술의 우

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임 청장은 한·브라질 양국간 심사, 심판 분야의 정보·자료 교환, 지적권집행 분야에서 협력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등 신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양국의 공조에 합의하였다.
- 또한, 임내규 청장은 3. 12. 월(현지시간) 멕시코 특허청을 방문하여 JORGE AMIGO (조지 아미고) 청장과 한·멕시코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KIPONET의 개발과정과 운영성과 등을 설명하였으며, 지적권 전문인력 양성방안과 WTO, WIPO 등 지적권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방안 등 양국간 지적권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3. 14(수) 귀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 전산화 현황

○ 지식재산 전산화사업의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IPR) 행정 절차의 Paperless화
- ※ 종전의 서면에 의해 처리되어 오던 출원, 심사, 등록, 공보발간, 심판등의 청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Paperless화 함

○경과

- 개발 소요기간 : 95 ~ 98
- 소요비용 : H/W 개발비용 179억원
S/W 개발비용 138억원
연인원 9만 5천명 투입
- 전산화 실시 : 99.1.2 Internet on-line 출원 시작
- 서면출원시 보다 출원비용 약 65% 절약

○ 지식재산 전산화사업의 주요내용

- 2000. 12월 현재 on-line 출원비율 약 79.2%
- 99. 1월 KIPONET 운영초기 on-line 출원비율은 약 57.3% 기록

○향후 전망 및 계획

- 2001. 12월말 on-line 출원비율 90% 도달 전망
- 향후 On-line 전자출원율의 지속적 증대추진

(100% paperless화 목표)

- WIPO를 비롯,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각국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노력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전개

- 전국 5개 주요 산업단지를 순회하며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

- 특허청(청장 임내규)이 중소기업내의 의사결정권자인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21C-전략마인드라는 주제로 서부 지역 산업단지(반월, 시화공단)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에서 특허청장 특강을 실시한다.
- 이번 강연회는 특허청이 2000년 9월부터 시작한 「중소 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21세기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마인드에 대하여 특강을 하게 된다.
-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이라는 인식하에,
 -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독자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2000년 특허청은 전국 총38개 지역에서 총 4,834여 명이 참석한 전국 순회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2000년말 현재 6,700여 중소기업과 19,000여명의 개인명의 중소기업

업 사업자가 신규로 출원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4%, 49%의 대폭적인 신규출원자의 증가효과를 거두었다.

- 특허청은 전국 순회 지식재산권 설명회의 참석자가 주로 중소기업의 실무자와 개인발명가에 편중되는 점을 보완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조속히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이번에 중소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허청장의 순회특강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특강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반월, 시화공단)을 시작으로 경인지역(4/20), 동남지역(5/17), 중부지역(6/14), 서울지역 (7/6)의 순으로 순회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강에서는 21세기 세상의 변화와 경영혁신의 방향과 과제, 특허청의 혁신사례 및 21세기를 위한 경영전략에 대하여 지식경영의 전문가인 특허청장이 직접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의 경영마인드 변화와 기업의 경쟁력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부처 브랜드개발 열기 높아

- 특허청은 1973년 상표법 개정시 도입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업무표장 출원·등록 실태를 최초로 발표했다.
 - *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 2000년말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가 출원한 업무표장 115개중 79.1%인 91건이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출원되어 정부기관도 자기브랜드 개발 및 보호에 대한 의욕이 고조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표장도 총 318개중 64.8%인 297개가 최근 2년간 출원되었다.



- 특히 2000년의 경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원이 2000년 업무표장전체 출원의 48.1%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기관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국가기관중 출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정보통신부로 총38건을 출원하였으며 농림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각각 7건을 출원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중에는 서울특별시가 13건을 출원한데 이어 경기도 7건 전라북도 5건 순위다.
- ※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강릉시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다.
- 특히 개발된 업무표장의 대부분은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심볼마크 등을 디자인한 도형표장이 대부분이었지만
- 서울경찰청의 '포돌이' 대검찰청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해양수산부의 '바다랑' 등으로 친밀한 한글 문자 표장과
- 금오공과대학의 '테크모(TECHMO)', 정보통신부의 '필라코(PHILAKO)', '스테피(STEPHI)' 등 영문 표장도 출원하고 있다.
- 특허청은 최근의 출원 열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업무표장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업무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일간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의 길 열리다

- 1단계로 생명공학분야의 염기서열목록부터 교환기로 결정 -

한국특허청은 2001년 3월 13일부터 일본특허청과 기존의 종이에 의한 문서전달 대신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문서교환을 개시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특허청이 전자정부 구현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0년 11월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청간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 교환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우선권 증명서류 중 대용량 데이터인

염기서열목록을 문서 대신 CD-Rom에 의한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양청간 수천 내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염기서열목록을 종이서류 대신 전자매체에 의해 교환하게 되면 특허청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관리비용 절감과 업무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해당출원인도 기존에는 관련 종이문서를 특허청에서 발부 받아 일본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으나 전자적 교환의 개시로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법 정비가 끝나는 대로 염기서열목록 뿐만 아니라 우선권 증명 서류 자체도 전자적으로 교환될 뿐만 아니라 한·일간 전용망을 통한 실시간 교환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종이문서가 전자적 수단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처럼 한·일간 특허관련 문서의 전자적 교환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향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등 주요 특허청과 전산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출원인 등 특허관련 민원인들에게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허청에 제출되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크기가 대용량화됨에 따라 종이 제출로 인한 출원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특허청의 종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관리하기 위한 보관공간 및 관리인력이 증가되고, 현재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에 의해 모든 심사, 심판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우선권 증명서류만은 직접 종이서류를 대출확인하여야 하므로 심사, 심판업무를 효율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종이서류 관리부담 및 심사관, 심판관의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특허청 전자화기관(KIPRIC)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심사관 및 심판관이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전자화 작업의 49% 이상이 우선권 증명서류의 스캔에 투입되어 전자화 기관 업무의 과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자화 후에도 서류를 일정기간

특허청 출원과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0년 11월에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양청간 코드 데이터에 의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1단계로서 2001.3.13.부터 생명공학분야의 우선권 증명서류 중 일부로서 핵산 및 아미노산 서열과 기타 유용한 정보를 상세하게 개시한 목록으로 이를 종이로 제출할 경우 수천 내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용량 데이터인 염기서열목록을 씨디롬에 의해 교환하기로 하였다.
- 양청은 염기서열목록을 씨디롬에 저장해서 기타 우선권 증명서류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발급해 주어 출원인이 이를 상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1단계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하여, 2단계로 2000년 7월부터 제1국 출원인이 제2국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번호를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하면, 제2국 특허청은 제1국 특허청에 해당 우선권 주장번호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1국 특허청은 요청받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씨디롬에 수록하여 제2국 특허청에 우편 발송하는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1년 12월부터 씨디롬을 이용한 교환방식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교환되나 다만 우선권 증명서류를 씨디롬에 저장하여 우편 발송하는 대신 전용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이 한·일 특허청간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지면, 종이서류 저장 공간 및 관리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전자화기관에서 수행하는 스캔작업을 위한 경비가 절감되며, 우선권 증명서류를 특허넷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어 심사, 심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특허넷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려 타국에의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음과 아울러, 향후 WIPO,

USPTO, EPO 등 주요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사항

- 우선권제도 및 우선권 증명서류란 무엇인가?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의 중요한 원칙중 하나인 우선권 제도는 파리협약의 동맹국인 제1국에서 행하여진 최초출원이 있다면 타동맹국인 제2국에 제1국의 최초출원을 기초로 하는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우선권제도는 이와 같이 제1국에서 적격한 출원으로 인정되면 제2국에서는 우선권을 인정하여 출원의 선후관계 등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제1국 출원일을 출원일로 본다라는 제도이다.
 - 제1국에서의 최초출원 사실만으로 출원시에 우선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원인이 제2국에서 최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수행이 필요하다. 즉 일정한 기간 이내에 출원을 해야하고, 출원시에 출원서에 최초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우선권 주장이라 한다.
 - 또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한 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최초 출원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출원내용의 등본을 제2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등본을 우선권 증명서류라 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 기업투명성
개선 건의**



미국 기업인들은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외환 시스템 보완, 기업 투명성 개선 등이 한국경제에서 빠르게 개선돼야 할 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연례무역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을 한국정부에 정책 건의했다.

제프리존스 회장은 한국기업과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사항으로

- ▲ 산업·금융·공공분야의 투명성 보장
-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 지속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 ▲ 법과 규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장기 계획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양자투자조약(BIT) 체결,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요구했다.

주미상공회의소는 오는 26~28일 본국에 파견단을 보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해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저작권법 전면 개정 방침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한 사람에게 5년간 복제와 배포,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현행 저작권법 대폭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현행 저작권법이 창작성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만 보호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콘텐츠를 해킹하는 행위와 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해 저작자의 이익을 침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처벌조항을 강화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내로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YTN

e저작권시비 소송 봇물

디지털 시대 문화상품의 저작권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e저작권' 소송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무료공유 업체인 냅스터사의서비스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데 이어 출판, 영화, 사진 등 각 분야에서 유사한 소송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각종 문화상품의 복제 및 유통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각종 소송 결과가 인터넷, CD롬 등 전자매체를 통해유통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수준 및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워싱턴의 미 연방대법원 법정에선 출판사와 프리랜서 작가들간에한바탕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측인 미국작가연맹 소속 회원들은 자신들의 원고가 아무런 사전동의없이 출판사나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나 기사모음 CD롬에 무단으로 실려저작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출판매체에 실리는 글에대해서만 원고료를 받았을 뿐 동일한 글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데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였다.

반면 출판사측은 이용자들이 이들 작가들의 글을 이용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CD롬의 검색기능을 이용하고 이에 대해 돈을 지불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용자들이 개별 기사를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작가들이 지난 99년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리한다면 유사한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언론 출판사들이 디지털 매체에서 아예 프리랜서들의 글을 삭제하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애써구축한 디지털 자산이 저작권료 지불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영화, 사진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저작권논쟁도 뜨겁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미 연방법원이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의 복제방지 코드해제소프트웨어 'DeCSS'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2600닷컴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지만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발행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어티도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에 의해 디지털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다.

스틸 헥터 앤드 데이비스의 변호사 노먼 데이비스는 "인터넷, 디지털 저장매체 등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법원이 사안별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경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5,113명 적발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지난 3월 한달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사범 등 5,243명을 검거해 이중 130명을 구속하고 5,1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1,914명

저작권법 위반 1,483명 상표법 위반 857명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557명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257명의 장법 위반 175명이 단속됐다.

주요 사례로는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서 K게임물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99년1월부터 CD 복제기를 이용해 게임물과 윈도 2000 등 컴퓨터 프로그램 4만여장을 복제해 판매한 이모(30)씨 등 2명이 구속됐다.

또 권모(34)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초순께부터 지난 2월19일까지 경기시흥시 대아동에 S산업이라는 자동차 범퍼 재생공장을 차려놓고 의장등록된 모 자동차회사의 앞, 뒤 범퍼 6,500여점(시가 5억8,000만원)을 제작, 판매하다 구속됐다.

출처 한국일보

특허청, 특허 審査의 質이 달라지고 있다

- 특허청은 2001년부터 최우선 정책과제를 실시처 리기간 단축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심사제도의 혁신을 단행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1/4분기 심사처리내용에 대하여 내·외부 출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 자율심사제도의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변 리업계는 지난해에 비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 이 높아졌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심사업무 담당자들 또한 자율심사로 인해 더욱 정밀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사의 질 향상은 물론 심사관의 자긍심 회복에 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앞으로 특허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 율심사제도 정착을 위한 총체적 품질경영(TQM) 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각종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됨



- 특허청은 그간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사항이었던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최우선 정책을 심사처리기간 단축에서 심사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자신의 업무량을 스스로 설정하여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심사제도의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율심사제도 시행초기이긴 하지만 종전의 심사제도에서의 심사처리내용을 자율심사시행 이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율심사제도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 특허청 내·외부 출원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2001. 1/4분기 자율심사 시행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내용을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변리업계를 대상으로 자율심사시행 이후의 심사처리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 심사결과통지서(의견서제출통지서)가 상세하게 작성되었다는 점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 자율심사 시행전인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 이와 함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담당관과 심사관을 대상으로 자율심사시행에 따른 심사처리내용과 심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 심사담당관은 자율심사시행으로 심사의 질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응답하였고
 - 심사관은 자발적 업무수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에 대한 자긍심 회복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앞으로 특허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심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더욱 심사의 질적 수준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 심사담당관실, 심사팀 등을 활용한 심사능력 향상 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심사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

화하며

- 특허행정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총체적 품질경영(TQM)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허청의 이와 같은 심사업무 혁신 노력에 의해 심사의 질적 수준은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 아울러 이러한 특허행정의 무한개선 노력을 통해 특허청이 비전으로 하고 있는 세계최고를 지향하며 지식기반 사회화를 선도 하고 국민 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2 월드컵을 향한 온 국민의 열기, 의장등록출원으로 이어져

2002 FIFA 월드컵을 약 400여일 앞둔 시점에서 특허청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월드컵 관련 의장등록출원 사례를 발표했다. 특허청 측에 의하면 상패, 저금통 등 실내장식물품 분야에 이와 같은 의장등록 출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매달 약 10여건 정도를 심사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창작성이 있는 일부의 참신한 사례만 등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원중 FIFA 월드컵 트로피 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등 당해 출원전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저작물, 건축물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는 의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 역사적인 2002 FIFA 월드컵 D-400일

- 세계 최대의 스포츠 제전이며, 인류의 가장 큰 축제중의 하나인 2002 FIFA 월드컵이 이제 4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 FIFA 월드컵 역사상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며, 전세계 6개 대륙을 대표하는 32개팀이 출전하여 35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관중이 함께하게 될 금번「2002 FIFA 월드컵」대회개최지인 한국과 일본은 온 세계인의 환호와 열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월드컵과 관련된 의장등록출원 급증

-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의 개최 400여 일을 앞두고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월드컵과 관련된 의장등록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특허청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의장등록 출원 증가는 주로 실내에서 사용되는 장치용장식물, 저금통, 상패등 실내장식품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매달 약 10여건 정도가 심사되고 있다고 한다.

□ FIFA 월드컵 트로피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경우, 의장등록 불가

- 특허청은 월드컵과 관련된 의장등록출원중 창작성이 있는 일부 참신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FIFA 월드컵 트로피를 모방한 저금통,

상패를 비롯 심지어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조감도를 본따 만든 실내장식품 등이라고 한다.

- 이러한 의장등록출원은 누구나 당해 출원전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저작물, 건축물의 외관을 모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으로, 의장등록에 필요한 요건인 신규성 또는 창작성을 결여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분야 심사관의 심사결과 대부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품의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월드컵 트로피 등을 기초로 하더라도 창작노력 등이 가미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FIFA, 한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 이와 관련하여 FIFA측은 99년 5월경 FIFA 월드컵트로피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FIFA 월드컵 관련 마크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상업권은 FIFA가 전세계에 걸쳐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FIFA의 사전승인 없이는 대회조직위원회외에 누구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FIFA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아울러 대회명칭인 “2002 World Cup Korea” 마크도 특허청에 FIFA 명의로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발특2001/5-6

